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이주를 고려한 선교 전략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 I. 서론
- II. 국제무역의 동향과 추이
- III. 해외직접투자의 동향과 추이
- IV. 국제이주의 세계적 동향과 경제적 특성
- V.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이주의 상호성
- VI. 결론

I. 서론

1990년대부터 세계화(globalisation) 현상은 개인, 기업 및 국가의 활동 전반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의 소비 성향과 소비 대상이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 세계 차원으로 구조적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 유통, 판매 활동도 세계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익숙해졌다. 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한 다국적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어 이들 다국적 기업 내부의 국가 간 거래가 세계 전체 무역 거래규모의 40%를 능가할 정도이다. 금융과 자본의 세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외환시장에서 1일 거래 규모는 2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규모의 자본이 하루 동안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다양한 통상 협상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면서 시장 개방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적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국가 간 상호협력과 경쟁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 나아가 사회 문화와 가치관의 동질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국가 간 총체적 상호 의존성의 심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통상 규범의 통일과 구속력 강화가 필요하였고,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세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흐름을 고찰하고 해외직접투자(FDI)에 의한 자본이동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이주의 특성을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의 이동 및 노동력 이동을 통합적으로 관찰하려 한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3대 부문의 특징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세계화의 흐름과 부합한 선교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국제무역의 동향과 추이

1. 상품 무역의 규모와 비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2006년 세계 전체 상품 무역의 규모는 11조 7,830억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수출 규모가 4조 9,630억달러로 세계 총 수출 규모의 42.1%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27.8%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캐나다의 대외 수출 규모는 1조 6,783억달러, 세계 전체에 대한 비중은 14.2%에 불과하여 수출 규모로는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전체 상품 수출량의 70%에 해당된다. 양 대륙에 국가 수가 많은 결과인 동시에 GDP 대비 무역 규모의 비중이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수출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북미, 중동 국가들의 지역 내 수출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인 것에 비해 유럽 국가들의 경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통합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역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세계화를 지향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내부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득 수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등의 여건들이 역내 무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옛 소련 연방이었던 독립연합국가(CIS) 국가들의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 대상 국가들의 지역 내 편중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CIS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진다. 역내 무역 규모보다 3~4배가 많은 수준이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역내 무역 규모의 3배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1> 지역 간 상품 무역 규모(2006년)

(단위 : 10억달러)

도착지 출발지	북미	중남미	유럽	독립국가 연합(CIS)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세계전체
세계전체	2,355	378	5,118	290	283	381	2,839	11,783
북미	905.3	107.3	279.3	8.3	21.7	42.1	314.1	1,678.3
중남미	135.0	111.5	86.4	6.1	11.3	7.9	61.8	429.9
유럽	430.3	66.6	3,651.5	141.6	120.2	128.9	356.4	4,963.0
독립국가 연합(CIS)	24.2	7.6	246.5	80.3	5.7	13.3	45.6	425.6
아프리카	79.6	11.3	148.1	1.4	32.8	6.3	72.6	363.3
중동	72.3	4.4	102.8	3.0	20.9	71.6	339.6	645.5
아시아	706.3	69.5	603.8	49.7	69.9	111.4	1,638.5	3,277.8

자료 : WTO

<표 2> 지역 간 상품무역의 비중(2006년)

(단위 : %)

도착지 출발지	북미	중남미	유럽	독립국가 연합(CIS)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세계전체
세계전체	20.0	3.2	43.4	2.5	2.4	3.2	24.1	100.0
북미	7.7	0.9	2.4	0.1	0.2	0.4	2.7	14.2
중남미	1.1	0.9	0.7	0.1	0.1	0.1	0.5	3.6
유럽	3.7	0.6	31.0	1.2	1.0	1.1	3.1	42.1
독립국가 연합(CIS)	0.2	0.1	2.1	0.7	0.0	0.1	0.4	3.6
아프리카	0.7	0.1	1.3	0.0	0.3	0.1	0.6	3.1
중동	0.6	0.0	0.9	0.0	0.2	0.6	2.9	5.5
아시아	6.0	0.6	5.1	0.4	0.6	0.9	13.9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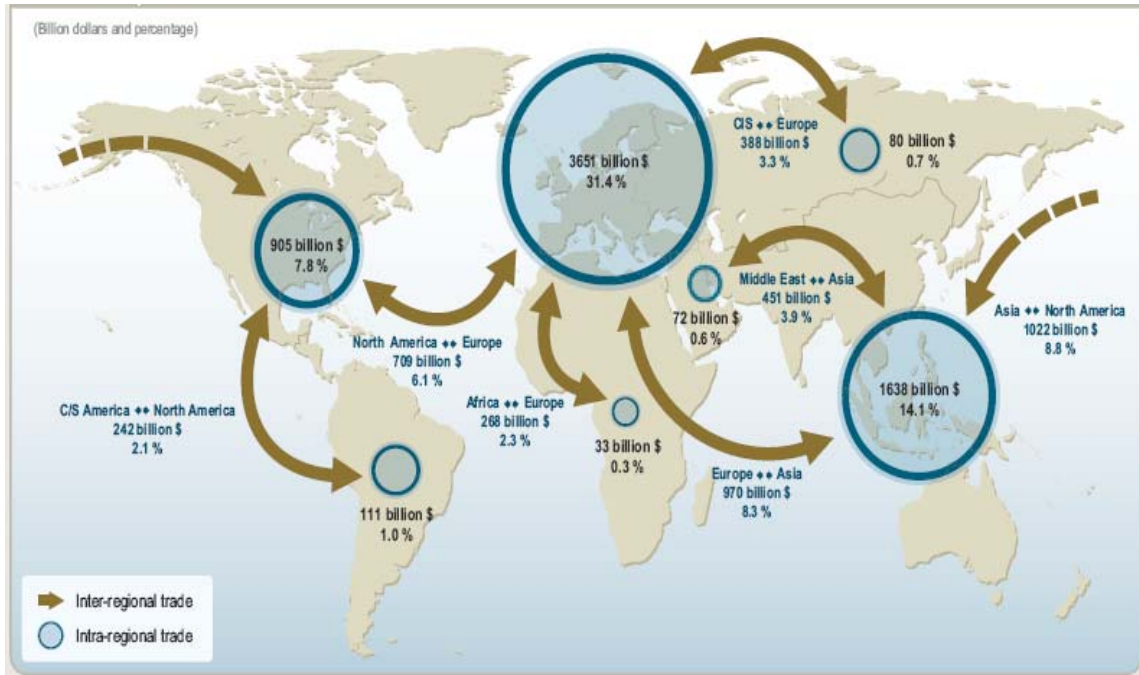
자료 : WTO

2. 상품 무역의 흐름

국제무역을 지역 내 무역(intra-regional trade)과 지역 간 무역(inter-regional trade)으로 나누면 전자의 비중이 확연하게 크게 나타난다. <그림 1>에서 원의 크기는 지역 내 무역 규모를 나타내며 화살표 아래 숫자들은 지역 간 무역 규모와 비중을 표기한 것이다. 이를테면,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지역 내 무역 규모는 세계 전체에서 45.5%에 이르지만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 무역량은 8.3%에 불과하다. 북미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 무역 규모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무역

량은 지역 간 무역량에 비해 6.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은 첫째 인접한 국가들 간 무역이 떨어진 국가들 간 무역보다 활발한 것은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회 경제체제의 상호 연계성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1990년대부터 지역경제 통합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상품 무역의 지역 간 및 지역 내 흐름도(2006년)



자료 : WTO

3. 상품 무역 증가율 추이

상품 무역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6년 세계 전체 상품 무역량 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GDP)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그림 2> 참조). 이는 국내 생산자나 소비자보다 해외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역할과 기여도가 더욱더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GDP 증대 노력은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며, 무역구조와 체제 변화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될 것임을 예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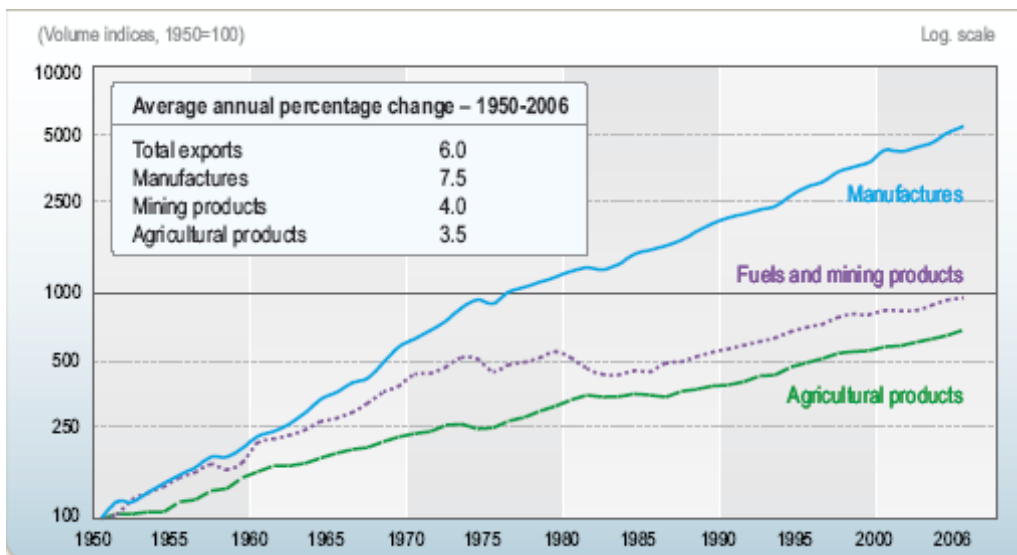
<그림 2> 상품 무역량과 국내 총생산 증가율 추이(2000~2006)



자료 : WTO

상품 무역 추이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50~2006년 사이 전체 상품의 연평균 증가율은 6.0%이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 상품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연평균 7.5%를 기록하였고, 농산물이 가장 낮은 3.5%를 나타냈다. 1970년대 초와 1980대 초 석유과동으로 인해 세계 전체 무역 규모의 감소세 또는 정체 양상을 경험한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무역 규모의 증가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주요 상품 그룹별 무역 추이(195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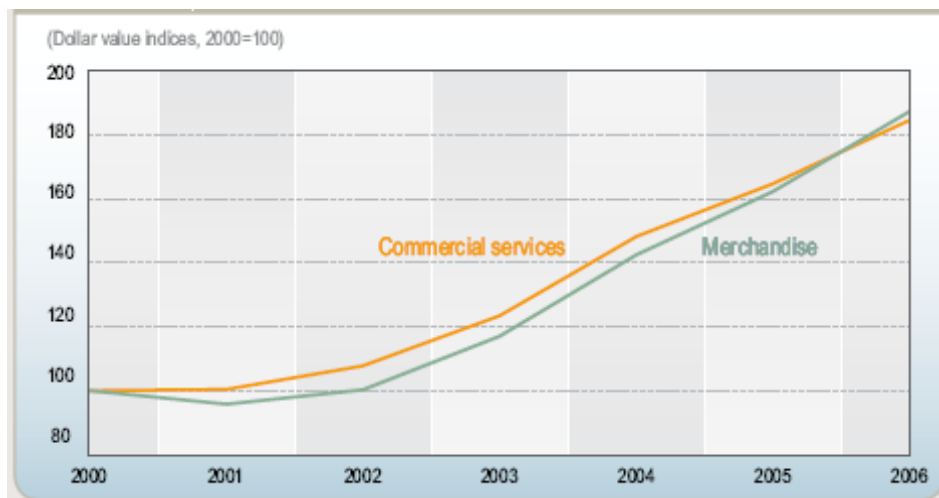


자료 : WTO

4. 서비스 무역 추이

그리하여 2000년 대비 2006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는 약 1.9배 증대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무역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관광, 교육, 의료, 설계엔지니어링 등 대부분의 서비스 활동은 ‘사람’에 체화된 것이므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는 ‘사람’의 이동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상품 무역은 일회적일 수 있으나 서비스는 연속을 가지므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림 4>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추이(2000~2006)



자료 : WTO

Ⅲ. 해외직접투자의 동향과 추이

2006년 세계 전체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1,250억달러 수준이었으며 1990년 대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전체 FDI의 85.9%는 선진국에 의해 이행되고 있어 자본의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FDI의 증가는 다국적 기업 활동의 영향이 크다. 선진국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비롯한 생산비용 절감 효과와 무역장벽 극복 효과를 추구하면서 생산설비를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시켜 왔다. 물론 전통적인 무역이론¹⁾에 따르면,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없다 하더라도 무역의 자유화가 실현되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균등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노동력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국제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

1) 헉셔-오린의 요소부존차이론에 의한 요소가격균등화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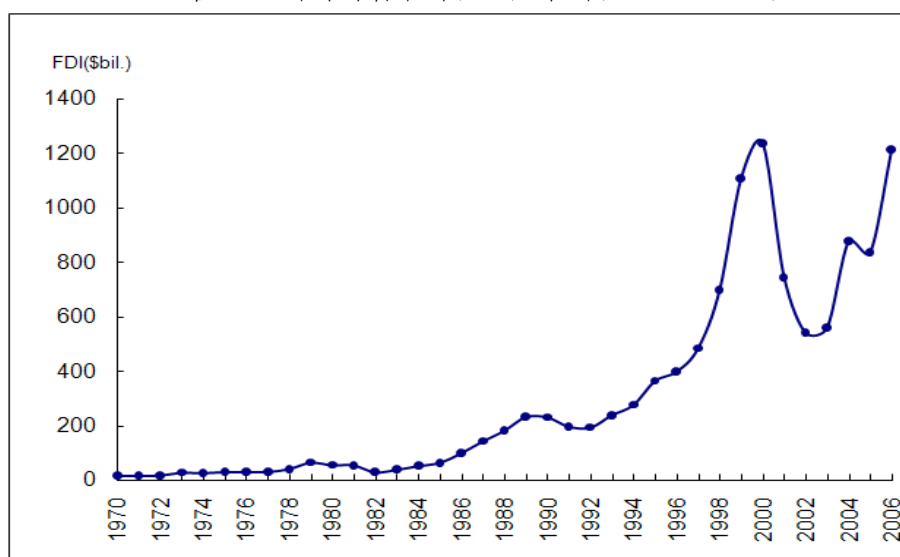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고 그러면 국내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저렴한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역으로 인건비가 비싼 국가에서는 점점 노동력을 절약하는 생산체제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므로 노동력 수요 감소로 인해 인건비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쌌던 국가에서는 인건비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가 균등화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유 무역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논지이다. 자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상품이 교역재가 아니므로 자유 무역에 의한 생산요소 가격의 균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생산요소의 가격 차이와 현지 시장 진출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FDI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한 자본(생산설비)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력 이동(국제이주)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FDI가 반드시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한 생산설비 이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 여건, 현지국 경제, 사회, 문화 여건, 생산 제품의 수명주기나 특성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후반 급증했던 선진국들의 FDI는 2001년 9.11 테러로 급감하였으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대표되는 신흥 거대경제권에 대한 FDI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과 더불어 확대되어 왔으나 국가 리스크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FDI의 활성화가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FDI를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자원들을 세계 곳곳에서 조달하고 역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림 5> 해외직접투자(FDI) 추이(1970~2006)



자료 : UNCTAD, 주 : Flow 기준

IV. 국제이주의 세계적 동향과 경제적 특성

세계은행에 따르면²⁾, 국제이주자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송금 총액은 2003년 723억달러로 대외공적자금(ODA) 규모를 능가했으며, 2006년에는 2,760억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5%는 개발도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이주들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3> 수입국 인구에 대한 인접국 이주자 수 비중

상위 15개 이주자 수입국	이주자 수(A)	수입국 전체 인구 대비(%)	인접국가로부터 이주자 수(B)	(B/A)의 비중(%)
미국	34,634,798	12.5	10,281,887	29.7
독일	9,143,244	11.2	957,016	10.5
프랑스	6,277,188	10.5	1,274,652	20.3
인도	6,270,659	0.6	5,822,700	92.9
캐나다	3,717,003	18.3	945,091	16.5
사우디아라비아	5,254,812	23.0	596,912	11.4
영국	4,865,541	8.2	537,885	11.1
파키스탄	4,242,691	3.0	724,233	17.1
호주	4,073,213	21.0	-	-
홍콩	2,703,491	37.7	2,193,425	81.1
코트디부와르	2,336,359	15.4	1,908,976	81.7
이란	2,321,453	3.6	2,298,835	99.0
스페인	2,172,201	5.5	530,358	24.4
이스라엘	1,978,103	31.1	34,882	1.8
요르단	1,945,210	39.0	218,582	11.2
전 체	93,935,966	5.0	28,325,434	30.2

자료 : C. Ozden and M. Schiff ed.(2007), *International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 Policy*, p.34

국제이주자는 2000년 1억 7,600만명에서 2005년 1억 9,100만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오늘날 국제이주자는 국제적 이동의 수월성, 휴대전화 및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와 같이 모국과 고립되기 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국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이주자의 동향은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 추세와 병행하여 세계화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한다.

국제이주의 지역별 비중은 남(선진국)-북(개발도상국) 간 이동이 남-남 또는 북-

2) *Global Development Finance*, World Bank(2006)

북 간 이동보다 우세한 양상이다. 인도, 이란,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접국가들과의 국제이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국제이주 문제는 WTO 체제에서도 “노동이슈”로 불리우는 노동문제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근로조건의 차이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국제통상규범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결국 노동력 이동 또는 보편적 노동력 사용으로 이어져 국제이주 문제는 세계화 흐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표 4〉 송출국 인구에 대한 인접국 이주자 수 비중

상위 15개 이주자 송출국	송출자 수(A)	송출 본국 전체 인구 대비(%)	인접국가에 대한 송출자 수(B)	(B/A)의 비중(%)
멕시코	10,098,858	10.0	9,347,744	92.6
인도	8,958,956	0.9	1,646,792	18.4
방글라데시	6,638,008	5.0	3,807,203	57.4
중국	5,793,974	0.5	2,442,169	42.2
영국	4,193,174	7.1	248,527	5.9
독일	4,047,061	4.9	915,277	22.6
필리핀	3,405,471	4.3	-	-
파키스탄	3,386,516	2.4	1,360,069	40.2
이탈리아	3,283,208	5.7	704,628	21.5
터키	3,001,152	4.5	184,940	6.2
아프카니스탄	2,695,589	9.9	1,898,925	70.4
모로코	2,614,663	9.0	346,073	13.2
미국	2,269,220	0.8	620,712	27.4
이집트	2,248,937	3.5	216,555	9.6
알제리	2,085,260	6.7	100,668	4.8
전 체	64,720,056	1.9	23,840,282	36.8

자료 : C. Ozden and M. Schiff ed.(2007), *International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 Policy*, p.34

V. 맺음말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동질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경제주체들 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 시장에서 정보의 유통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국제이주는 단순한 인구 이동만이 아니라 국제경제 여건 변화와 무역 및 자본 이동의 변화와 연계되므로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고려한 국제이주자 선교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19세기에는 제국주의적 선교 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되었고, 20세기에는 경제개발 지원과 병행한 선교 전략이 주요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생산요소의 이동과 시장 개방에 따른 선교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유입된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활동과 연계시킨다면 단지 오지 또는 미개발지라는 이유만으로 선교 현장을 해외 먼 곳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국내에 자율적으로 유입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외향적(outward) 선교에서 내향적(inward) 선교 방향 전환에 대한 통합적 전략을 고안해 내고 실천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문화를 고려한 국내외 이주자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선교 활동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통상 협상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MFN), 내국민대우원칙(NT), 상호주의 등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이제 국제통상의 흐름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선교 전략의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과 특히 목회자들과 사회과학 영역 전문가들과 폭 넓은 상호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참고 문헌>

- 김상근(2006), 『선교학의 구성요건과 인접 학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영환(2006), 『선교정책과 전략』, 서울, 도서출판 바울
- Alan Neely(1995), *Christian Mission : A Case Study Approach*, 사례 중심으로
본 선교 이해, 쿤란출판사, 2005
- Byron, Margaret-Stéphanie Condon(2008),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 OECD(2008), *OECD Factbook 2008*, OECD
- Özden, Çağlar-Maurice Schiff eds.(2007), *International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 Policy*, The World Bank and Palgrave Macmillan
- WTO(2007), *Annual Report 2007*, WTO